

안다아시아벤처스 월간뉴스(23.04)



CONTENTS

1. 안다아시아벤처스 현황 보고

- 모태펀드 전북·강원 지역혁신 분야 운용사 선정

2. 신규 투자 검토 기업 보고

- 1) 이지차저
- 2) 합파트너스

1. 한국벤처투자주관, 모태펀드 전북·강원 지역혁신 분야 운용사 선정

[동남권, 대구·제주·광주, 전북·강원] 지역혁신 벤처펀드 2022년 출자사업 선정 결과

□ 선정조합 수 6개, 결성예정액 1,136억원, 출자요청액 774억원

(단위 : 억원)

출자분야	결성예정액	출자요청액	회사명(가나다순)
동남권 지역혁신	400	280	경남벤처투자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
대구·제주·광주 지역혁신	426	298	넥스트지인베스트먼트
			대덕벤처파트너스/에스케이증권
전북·강원 지역혁신	310	196	소풍벤처스
			안다아시아벤처스

안다아시아벤처스가 2023년 4월 10일부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벤처투자에서 주관하는 전북·강원 지역혁신 벤처펀드 운용사로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안다아시아벤처스는 전년에 이어 두번째 정부 펀드인 전북·강원 지역혁신 벤처펀드 운용사 선정을 계기로 더욱 공신력 있는 벤처투자회사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당사는 전북벤처기업협회, 강원대학교 기술지주회사 등과 지역혁신 전문가 협력체를 구성하여 지역 우수기업을 포함한 혁신 벤처 기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펀드 출자자인 대창스틸, 현대공업 등과 함께 적극적인 멘토링. 그리고 하나은행 지역 본부를 통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여 혁신 벤처 기업을 장기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신규 투자검토 기업

안다아시아벤처스

[이지차저(후속 투자)]

■ 22년 12월 선행 투자시점 대비 23년 1~4월 기준 영업 성과

구분	투자 전 (22년 1~12월)	투자 후 (23년 1~4월)	비고
완속 충전기 확보 기수	10,077 기 (70,539kW)	11,832 기 (92,004kW)	+1,755 기 증가 (+21,465kW 증가)
급속 충전기 확보 기수	251 기 (25,100kW)	1,591 기 (185,850kW)	+1,340 기 증가 (+160,750kW 증가)
총 충전기 충전 용량	95,639kW	277,854kW	+182,215kW
(용량기준) 민간 CPO 업계 순위	8 위	1 위	-
확보 보조금 규모	130 억원	300 억원 (400 억원 확보 목표)	전년 대비 3x 이상 확보 목표

* 급속 충전기(50~350kW) 1대는 충전 용량 CAPA 기준 완속(3~11kW)의 10~100배 이상 차이 있어 기수 기준 보다는 용량 기준으로 환산하는 것이 실질 M/S 비교에 적합

- (CPO*) 2023년 1~4월만 총 3,095기 신규 수주(용량 기준 182,215kW 확보)하였으며, 특히 급속충전기 확보 대수 22년 대비 6.34배 증가(251기 → 1,591기)하여 현재까지 총 수주량 포함한 충전기 충전 용량 기준으로 환산 시 충전서비스(CPO) 민간 업계 1위 달성
- (보조금) 22년도 연간 총 보조금 확보 금액 130억원에서 23년도 1~4월만 보조금 300억원 기확보하여, 연말까지 400억원 이상 확보 목표하고 있음. 환경부 총 예산 3,000억원 중 약 10% 확보한 상태로 1분기 물량 중 약 50% 확보한 것으로 파악됨

* CPO(Charge Point Operator): 전기차 충전서비스 운영 사업자

■ 투자포인트

- 1) 국내 유일의 충전기 인프라 전후방 산업 커버 가능한 모빌리티 인프라 기업
- 2) 급속 충전기 대량 수주 및 제조사업 진출로 매출액 3.4x 증가 예상(기확보 보조금 약 300억원)
- 3) 23년도 4월 기준 총 수주량 반영한 충전용량 환산시 민간 충전서비스 사업자(CPO) 1위 달성

■ 향후 전망

- **(실적)** 금년도 실적으로 매출 460~550억(보조금 포함), 당기순익 30~40억 정도 예상. CPO 매출 180억원, 보조금 수익 120억원 예상. 특히 급속충전기 대량 수주로 인해 충전기 제조 자회사 설립 예정으로 확보한 보조금은 자회사로부터 충전기 매입 비용으로 사용되고 매출 내재화 예정
- **(미래전망)** 매년 1만기 이상의 충전기 구축 계획으로, 25년에는 총 충전기 수 5만기를 운영하는 CPO 업계 최상위권 M/S를 확보할 예정. 전기차수 증가에 따른 개별 충전기 사용량 증가로 CPO사업의 매출 및 이익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26년 매출 2,100억원, 당기순익 720억원 달성 목표)

신규 투자검토 기업

안다아시아벤처스

[함파트너스]

■ 함파트너스의 사업모델



동사는 브랜드 전략부터, 광고, 프로모션, 디지털, 언론 홍보, 퍼포먼스까지 종합적인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홍보마케팅 대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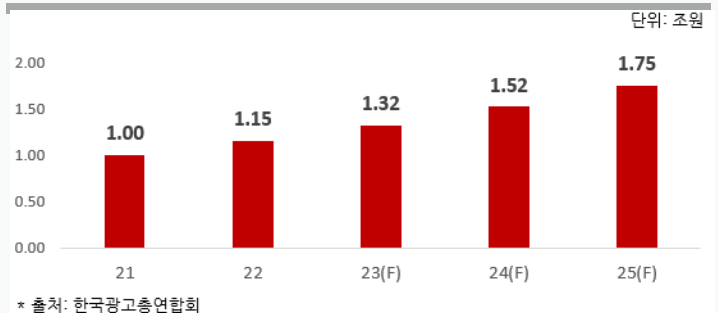
15년간, 다양한 산업의 500여개 이상의 기업에 대한 브랜드 마케팅 활동 진행해왔으며, 현재 약 70건의 계약 Clients 보유

국내 최초 PR Tech 기반 미디어 플랫폼 'NEWSLINK' 런칭하여 인력 중심의 기존 PR Work의 자동·효율화된 서비스 제공 예정

■ 투자포인트

- 1) 높은 업력과 업계 레퍼런스를 보유한 국내 1위 PR 업체
- 2) 네이버 Hyper-Clova협업 AI 보도자료 작성 등 Tech 기반의 新 BM 창출
- 3) 빠른 회수 가능성('23년 하반기 중 상장 목표)

■ “국내 PR 산업” 시장전망



•국내 PR업체 수는 약 1,000여개 존재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2021년 기준 상위 8개 업체의 PR 취급액은 약 1,400억 이상으로 국내 PR시장은 약 1조 원을 상회하는 규모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

•과거 연평균성장률과 2021년 추정 시장규모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2025년까지 약 1.75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연평균 성장률 15%)

■ 향후 전망

	(단위: 백만원)	2021년	2022년	2023년(F)
재무현황	매출액	10,057	12,272	15,226
	영업이익	1,228	2,932	3,544
	당기순이익	1,081	2,561	3,012
향후전망	• 퍼포먼스 AD 사업 인수 등 공격적인 사업 진행으로 인해 매출과 영업이익 상승추세에 있으며, 향후 25% 전후의 매출 성장 목표			
	• PR 및 AD TECH 고도화로 24년부터 매출액대비 인건비가 빠르게 감소할 수 있어 수익성이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			